

〈論壇〉————

姜 鎮 伯 : 서울大 助教

圖書館 利用法

——차례——

- | | |
|-------------|------------|
| 1. 圖書의 序頭部分 | 5. 百科辭典類 |
| 2. 藏書의 排列 | 6. 定刊物 便覽 |
| 3. 카드目錄 | 7. 學術雜紙 索引 |
| 4. 辭典類 | 8. 書誌 |

圖書館 特히 大學圖書館은 人類가 太古로 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사색하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연구를 거듭한 結果 생겨난 歷史的 產物인 圖書, 逐次刊行物, 文書등의 記錄類, 팜플렛, 지도, 사진, 書畫, 拓本, 리아플렛, 클립핑, 슬라이드, 필름스트립, 영화용 필름, 錄音盤, 마이크로필름 및 마이크로카드 등의 諸資料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동시에 이를 신속 정확히 교수나 학생의 研究資料로서 제공하는 봉사 기관이므로 大學教育과 함께 學術研究에 있어서는 必要 不可缺한 施設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학 교육의 시책이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의 활동을 경시하고 말로만 대학 교육의 심장부라고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圖書館 奉仕의 方法에 있어서 從來의 消極的, 受動的, 一面的인 奉仕에서 積極的, 能動的, 多角的인 奉仕 方法으로 변화, 발전된 것이 現代 圖書館의 特徵이긴 하나, 한국의 오늘날의 실정에서는 이러한 奉仕 方法을 기대하기는 곤난한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을 利用하는 교수나 학생들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규정을 빨리 이해하고 도서관 장서의 배열 방법과 열람 목록의 구성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1. 圖書의 序頭部分

우리가 책속에 들어 있는 지식을 신속하고 쉽사리 찾아내려 한다면 우선

책의 序頭部分 및 그 배열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우선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標題紙에는 맨 윗부분에 標題가 나와 있고 그 밑에 著者名과 “개정판”등과 같은 版數,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出版場所, 出版者名과 出版年月日이 나와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저자가 그 책을 쓰게 된 이유와 그가 받은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序文이며,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主題에 대한 예비적 토론인 序論이 있다. 책속에 들어 있는 내용의 윤곽인 목차는 서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보통 章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各章이 시작되는 페이지수가 나와 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차를 대강 훑어 봄으로써 그 책이 어떤 主題를 다루고 있으며, 자기의 연구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물론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本文이다. 本文 속에는同一한 主題에 대한 다른 책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이를 참조서 일람이라고 부르며, 저자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참고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그주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여주고, 各章의 끝이나 또는 本文끝에 나와 있다.

책의 가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索引(Index)인데 이는 그 책속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人物, 場所, 物件에 대한 A.B.C順으로 된 목록(目錄)이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 수가 주어진 색인을 참고함으로써 책을 완독하지 않고서도 特別한 主題가 취급된 곳을 찾아낼 수가 있다.

2. 藏書의 排列

도서관의 서고에 도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서고에 도서를 어렵지 않게 늘어놓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排列法이 시도되었지만, 도서관에는 多方面의 主題에 관한 多量의 도서가 所藏되어 있으므로同一한 主題에 관한 도서는 모두 함께 서고에 배열하는 방법이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 관한 책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서고의 한 장소에 정리되어 있는 그것에 관한 책을 찾아보면

된다.

同一主題에 관한 책을 서고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그들을 사용한 후 다시 그 장소에 놓아두기 위해서는 책의 주제를 어떠한 방법을 써서 그 책에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책에 “韓國史一壬辰倭亂”과 같이 긴 문구를 써 넣는 것은 實用的이 못된다.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러한 표시법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세계 대다수의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멜빌 듀이가 발명한 아래의 십진분류법이다.

000—099	총류
100—199	철학
200—299	종교
300—399	사회과학
400—499	어학
500—599	순수과학
600—699	응용과학
700—799	예술
800—899	문학
900—999	역사

도표 1

도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900에서 999는 역사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이 중에서 911은 韓國史를 나타내는 숫자이며 900과 999 사이의 각 숫자는 십진법을 사용해서 더 세분된다. 예를들어, 911.1은 原始時代人の 生活 및 文化를 취급한 原始時代, 911.2는 三韓時代를 포함하는 古代, 911.3은 三國 및 後三國時代를 취급한 三國時代를 표시하는 숫자이다.

우리는 도서관에 있는 책이 主題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 가를 알아 보았다. 그러나 도서관에는 각기 다른 著者가 쓴同一한 主題에 관한 책이 많이 있는 고로,同一한 主題에 관한 책, 따라서同一한 분류기호를 가지고 있는 책을 취급하는 가장 좋은 배열법은 著者名에 따라서 A.B.C順으로 배열하는 方法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책을 배열하기 위해서, 보통 저

자명의 첫글자를 분류 숫자의 밑에 써 넣는다. 예를 들면, 成昌煥의 “經濟原論”은 330.2로 기입하고, 330.2의 李廷煥의 “新經濟學”보다 앞에 배열한다. 또 저자명의 첫글자가同一한 경우에는 저자명의 첫글자 다음에 특별숫자를 기입해 넣는다. 예를 들면 李基俊의 “現代經濟學原理”는 330.2로 표시하고, 330.2의 李廷煥의 “新經濟學”보다 앞에 배열한다.

이와같은 규칙에 따라 서고의 선반위에 측면 종대로 배열한다. 다시 말해서 선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에는 밑에 있는 선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칸의 맨 밑층의 선반을 배열한 다음에는 다음 칸의 맨 윗층의 선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한다.

3. 카드目錄

도서관의 카드目錄은 책의 뒷부분에 나와있는 색인(Index)과 아주 흡사한 것이다. 책의 색인이 그 책안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主題에 대한 A.B.C順의 目錄이고, 페이지로써 찾아볼 수 있음에 比하여 도서관의 카드목록은 도서관안에 있는 모든 책에 대한 A.B.C順의 目錄인 것이며 記號로써 책이 서고에 위치하고 있는 場所를 提示해 준다. 따라서 도서관의 카드目錄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 1) 도서관은 어떤 저자가 쓴 책을 소장하고 있는가?
- 2) 도서관에는 어떤 특별한 標題에 관한 책이 있는가?
- 3) 도서관에는 주어진 主題에 관한 어떠한 책이 있는가?

편의상 도서관의 目錄은 카드로 되어있고 각 冊마다 單一카드나 일련의 카드가 만들어져 있다. 모든 책에 대한 카드目錄은 목록함속에 보존되어 있고, 카드의 맨 윗줄의 첫글자의 A.B.C順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 目錄函속에 어떤 카드가 배열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각 목록함에는 첨지가 붙어 있다. “A—B”的 첨지는 “A”나 또는 “B”로 첫 낱말이 시작되는 카드가 들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目錄카드를 조사하여 카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朴鍾鴻교수가 쓴 책이 도서관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 한다면 “B”的 첨지가 붙어있는 目錄函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만일 도서관

에 박종홍 교수가 쓴 책을 가지고 있다면 도표-2에 유사한 카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160.2 B148	박 종 홍
	一般論理學, 朴鍾鴻著, 서울,
	白映社, 1952
	195p

도표 2 (저자카드)

160.2 B148	一般論理學
	朴鍾鴻 著

도표 3 (서명 카드)

이 카드는 저자명이 제일 앞에 나와 있으므로 저자카드라 부른다. 이 카드는 도서관에 一般論理學이라는 제목의 박종홍 교수가 쓴 책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과 서울에 있는 白映社가 1952 年에 출판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195p.”는 그책이 195페이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도서관에 따라서 출판장소와 페이지수는 카드에 포함시키지 않는 곳도 있다.

우리는 이제 도서관에 박종홍 교수가 쓴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것인가? 도표 2의 카드의 왼쪽 구석에 분류 숫자와 그 밑에 저자명의 첫 글자와 특별 숫자가 나와있다. 그 분류 숫자 및 문자(이를 흔히 請求番號라 부른다)가 책의 위치에 대한 열쇠다. 왜냐하면 책의 標題紙에도 同一한 請求番號가 나와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책이 서고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서고에 가서 책을 찾아낼 수가 있다. 설령 우리가 一般論理學을 쓴 저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G”的 첨지가 붙어있는 目錄函을 조사하여 一般論理學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표 3과 유사한 카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카드는 書名이 제일 앞에 나와 있으므로 書名카드라 부른다. 圖書館은 대개의 경우 特殊하거나 유명한 주제에 대한 모든 책의 書名카드를 목록함속에 소장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一般論理學에 관한 책의 저자와 서명을 알지 못하고 그 主題에 대한 책을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지를 알고싶어 한다면 우리가 해야될 일은 오로지 “一般論理學”하의 목록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主題에 관한 많은 도서의 카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중에는 도표 4와

같은 카드가 있을 것이다. 이 카드는 主題가 제일 앞에 나와 있으므로 主題 카드라 부른다. 이러한 카드에는 보통 主題가 朱書나 大文字로 되어 있으며 請求番號가 나와 있다. 도서관에는 모든 중요한 주제에 관한 주제카드가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어떤 사람이 저술한 책이 있고, 그 사람에 관한 책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Theodore Roosevelt는 많은 책을 집필했고 그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다. 目錄속에 있는 Roosevelt가 쓴 책의 저자카드와 그에 관한 책의 주제카드는 “Roosevelt, Theodore”라는同一한 標目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Roosevelt에 관한 저서의 주제 카드와 Roosevelt 저서의 저자카드가 함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Roosevelt에 관한 저서의 주제카드에는 朱書나 大文字로 된 “Roosevelt, Theodore”라는 標目이 있으므로 Roosevelt가 쓴 책의 저자카드와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 Roosevelt에 관한 저서의 주제카드중에는 도표 5와 같은 카드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160.2 B148	一般論理學
	朴鍾鴻 著
	一般論理學, 서울, 白映社, 1952
	195P

도표 4 (주제 카드)

920 W	ROOSEVELT, THEODORE
	Wildman. Edwin
	Theodore Roosevelt. (In his Famous leaders of character in America. (1922. p.209—221)

도표 5 (주제 카드)

이 카드는 Wildman의 저서인 “Famous Leaders of Character in America”라는 책의 209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사이에는 Roosevelt에 관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만일 “도서관은 항공학(aviation)에 관한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가?”과 같은 질문에 부딪히게 될 경우에는 “aviation”下의 목록을 찾아보면 도표 6과 같은 카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카드는 참조카드라 부르고 “Aviation”에 관한 책을 찾아보려면 “Aeronautics”的 목록을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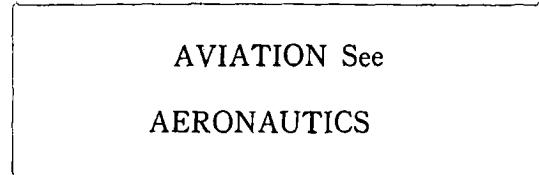


도표 6 (참조카드)

4. 辭典類

참고서는 어떤 主題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를 찾아내는데 참고하는 책이지 결코 완독해야 되는 책은 아니다. 이러한 참고서에는 사전, 백과사전, 잡지, 색인, 연감 등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참고서중의 하나가 사전이다. 소위 완전한 大辭典이란 언어로 된 모든 낱말에 대한 A.B.C順의 목록이고 그 낱말의 철자, 발음, 의의, 용법, 어원, 동의어등에 관하여 해설하여 놓은 책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소위 大辭典에 아주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大辭典속에서 우리는 실지 人物이건 가상 人物이건 간에 그 개개인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한 유명한 人物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George Washington 과 같은 歷史上의 重要人物과 David Copperfield와 같은 소설속의 유명한 人物과 Hercules 와 같은 神話的 人物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또한 辭典에는 國名, 都市名, 강(江)과 같은 地名이 나와있다. 그리고 약어(略語)와 아주 흔한 外國語句의 意味가 나와있다.

어떠한 大辭典에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자료들이 나와 있으나 각기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사전을 주의깊게 잘 익히하고 맨 앞에 나와있는 일러두기를 잘 익히하여야 한다.

5. 百科辭典類

모든 참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백과사전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거의 모든 主題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새, Edinburg 또는 라디오, 혹은 Robert Louis Stevenson 등과 같은 어떤 論題에 관하여 무언가를 조사하길 원한다면 백과사전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나와있는 포괄적인 항목을 찾아보면 된다. 일반 백과사전은 보통 대단히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고로 보통 여러 권으로 되어있다. 편리하게도 전권

(全卷)에 나와있는 모든 항목은 각 항목의 주제에 따라서 A.B.C順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 권의 標題紙에는 도서관의 목록함에 나와있는 것과 유사한 지침이 있어 각 권에 어떤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大部分의 百科辭典의 각 항목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집필되어 있고 때로는 그들의 서명이 나와있는 것도 있다. 각 권의 첫머리나 제 1권의 첫머리에는 각 항목을 집필한 집필진의 목록이 나와 있는것이 보통이다.

일반 백과사전은 대단히 많은 論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고로, 단행본과 같이 아주 상세하게 중요한 주제를 다룰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항목의 끝에는 그 주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책의 목록, 소위 참조서 일람표가 나와있다. 또한 어떤 백관사전은 이 참고서 일람표를 한권의 책으로 묶어 놓은 것도 있다. 이와 같이 백과사전은 간단한 일반기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주제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이건 간에 일반 개념을 제공하여 주고 좀더 상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참고서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하려 할 때는 좋은 시발점인 것이다.

항공학, 화학 그리고 전자학과 같은 분야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자료가 아주 쉽사리 낡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최종적으로 포함된 시기를 알기 위하여 항상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최근의 출판년월일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全百科辭典을 개정하거나 다시 집필하는 것이 아주 번거롭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십년이나 이십년에 한번씩 단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출판업자들은 全卷의 어떤 부분을 개정하고 최신의 자료를 각 항목에 첨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정한다는 원칙에 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百科辭典은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다. Collier's Encyclopedia, Encyclopedia American, Encyclopedia Britannica 등과 같은 一般 百科辭典과 Britannica Junior, Compton's Pictured Encyclopedia, The World Book Encyclopedia 등과 같은 學校 百科辭典과 Grove's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An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등과 같은 特殊 百科辭典이 있다.

6. 定刊物 便覽

잡지나 정간물은 다방면의 主題에 관한 흥미있고도 귀중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고 때로는 아주 최신의 자료이므로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사물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잡지의 수가 대단히 많고 또 자주 출판되기 때문에 그 잡지들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면 도서관에 있는 도서의 색인이나 목록과 꼭같은, 잡지에 실려있는 論文에 대한 색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편리하게도, 현대 일반 잡지에 나와있는 論文에 대한 색인은 정간물 편람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 정간물 편람에는 가장 중요한 현대 잡지 중 100종 이상의 잡지의 論文에 대한 색인이 나와있다. 이 정간물 편람은 한달에 두번씩 출판되고 前期間 동안에 출판된 잡지의 내용에 관한 색인이 나와있다. 그런데 한달에 두번씩 출판되는 이 정간물 편람을 매년 한번씩 합본하여 그 해에 나온 모든 論文에 대한 종합적인 색인을 편찬하고 다시 2년에 한번씩 종합적인 색인을 작성하여 지난 2년간의 모든 자료에 대한 색인이 포함되어 있는 정간물 편람을 출판한다.

정간물 편람의 각권은 저자명과 논문제목명을 A.B.C順으로 색인, 편성하고 시, 영화, 연극등은 개별적으로 시, 영화, 연극 제목하에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사일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보기자를 원한다면 그 標目下의 편람을 찾아보면 그 主題에 관한 많은 論文이 나와있고 동시에 그 論文이 실려있는 雜紙名이 나와 있다. 論文中에는 아래의 도표 7과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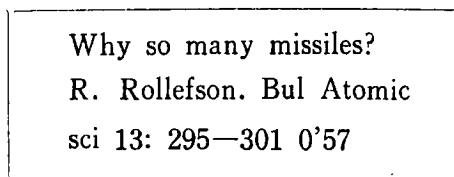


도표 7

도표 7에서 “Why so many misslies?”는 論文의 題目, R. Rollefson 은 著

者, “Bul Atomic Sci”는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라는 雜紙名, “13”은 권수, “295~301”은 이 論文이 실려 있는 페이지수, “O’57”은 1957년 10월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7. 學術雜紙 索引

정간물 편람과 유사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서울대학교 외국 학술잡지 색인」이라는 것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학내외 인사들의 조사 연구를 돋기 위해서 매우 정확하고 가장 새로운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몇해 동안 「학술 문헌 속보」라는 제호하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잡지의 색인을 간행하여 총 8권을 출간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각 분관에서 구독하는 학술잡지를 제외하고 중앙도서관에 들어온 학술잡지 색인만을 위주로 했고, 국외의 학술잡지 색인을 취재했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거나 교환형식으로 입수되는 학술잡지의 수효가 적었던 관계로, 사실상 출간되는 각권의 양은 너무 빈약한 감이 있었다.

채래의 이런 결점을 시정하여, 금년부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및 각분관과 각 연구기관에서 구독하는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외국 학술잡지 전부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색인을 엮어, 그 제호도 「서울대학교 외국 학술잡지 색인」이라 개칭하여 발간하게 되어 이미 제 4권까지 발간된 바 있다.

이 「서울대학교 외국 학술잡지 색인」은 3개월마다 한번씩 발간하여, 前期間동안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및 각 분관과 각 연구기관에 구입되거나 또는 기증된 외국 학술잡지에 대한 종합적인 색인을 편성하되, 공지사항, 사업보고, 회계보고, 인사이동사항등과 같은 홍보 또는 광고적인 것과 정기적 통계표, 문헌목록, 초록등과 같은 서지적인 것 및 수필, 감상문등과 같은 대중적인 기사는 제외하였다.

이 「서울대학교 외국 학술잡지 색인」의 각 論文의 배열은 듀이 십진 분류법 체계에 준하여 배열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학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를 원한다면 「400 어학」의 標目下를 찾아보면 그 主題에 관한 많은 論

文이 나와있고 同時에 그 論文이 실려있는 雜紙名과 그 雜紙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처가 나와있다. 論文中에는 아래의 도표 8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Anderson, Tommy R.
On the Transparency of Begin:
Some Uses of Semantic Theory.
Foundations of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Philology), V.4, No.4, p. 394—421, Nov. '68. 어

도표 8

도표 8에서 “Anderson, Tommy R”은 저자, “On the Transparency of Begin: Some uses of Semantic Theory”는 論文의 題目, “Foundations of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Philosophy)”는 잡지명, “V.4, No.4”는 권수, “p.394—421”은 論文이 실려 있는 페이지, “Nov. '69”는 출판년월일, “어”는 「어학연구소」라는 문현보관처를 나타내는 것이다.

8. 書誌

우리가 書誌라고 一般的으로 칭하는 Bibliography에 대한 概念은 西洋과 東洋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東洋에서는 圖書의 歷史 혹은 解說에 관한 것을 研究하는 學問으로서 書誌學이라 부르며 著者, 書名, 印刷地, 版種, 資材, 形式, 裝幀等을 그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西洋에서 말하는 Bibliography는 特定한 主題, 著者, 印刷者, 印刷地, 刊年, 版權 등에 관계있는 圖書의 目錄, 特히 解題를 붙인 것을 주로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 書誌에는 10餘種이상의 種類가 있으나 그 代表的인 몇가지 書誌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1) 完全書誌(Complete Bibliography) : 著者, 標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도서목록

- 2) 總書誌(General Bibliography) : 모든 主題에 관한 圖書를 총망라하여 편성한 도서목록
- 3) 個人書誌(Individual Bibliography) : 어떤 個人的著書를 집대성한 書誌
- 4) 主題書誌(Subject Bibliography) : 어떤 主題에 관해서 편찬한 書誌
- 5) 特殊書誌(Special Bibliography) : 특수한 도서에 관한 書誌

참 고 서 적

- 1) How to use library, Gaylord Bros., Inc., 1959, Stocktion.
- 2)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Margaret Mann, 1943, Chicago.
- 3) 圖書館實務便覽, 韓國圖書館協會, 1966, 서울.
- 4) 韓國十進分類法, " , 1966, 서울.
- 5) 韓國目錄規則, " , 1966, 서울.